

## 출산 20분 전 '임신' 사실 알아차린 여성

출산하기 20분 전야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달 15일 새벽 4시 30분경,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여성 카린은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깬다. 카린은 자신의 통증이 이전 출산 때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출산이 시작됐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는 아니었다." 고 덧붙였다.

카린은 임신 사실을 몰랐던 탓에 태아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태아 성장에 필수로 알려진 비타민 보조제도 섭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간혹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기는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고, 가족 모두 갑작스러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카린의 남편은 "아내가 새벽에 '아무래도 아이가 나오는 것 같다' 고 말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나온 뒤 더 아이들을 모두 태울 수 있는 큰 차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기뻐했다.

딸을 출산한 카린은 4세, 2세, 1세가 된 아이 세 명을 출산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카린은 "지난해 여름, 어지러움과 약간의 구토 증상이 있었는데, 당시 아이들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 역시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여겼다." 면서 "게다가 지난해 1월 셋째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또 아이가 생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매달 생리가 없던 것 역시 셋째 아이에게 모유 수유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겼을 뿐이었다." 며 "뱀무게가 조금 늘긴 했지만 임신을 짐작할 정도

## 외출금지령 무시한 시민들 군헬기 출동에 해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외출금지령을 어긴 시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군이 출동했다.



는 사람들을 자택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튀니지에서는 건강이상이나 필수적인 쇼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주 동안 모든 국민의 외출이나 집밖의 활동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을 금지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4월 초 브라질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브라질 당국은 이동 제한 등 봉쇄 조치를 어기고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헬기가 접근해 모래 바람을 일으켜 해산시키는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튀니지에서는 수십 명의 젊은이가 외출금지령을 무시한 채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다가 출동한 군용 헬리콥터가 일으킨 모래 바람에 시합을 중단하고 해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11일 튀니지 남성 '합자' 가 트위터에 공유한 영상에는 군을 동원해서라도 외출금지령을 위반하

## 가슴 보형물 덕에 목숨 구한 여인



▲ 총에 맞은 캐나다 30대 여성의 목숨을 구한 실리콘 가슴 보형물

가슴 보형물 덕분에 총에 맞고도 목숨을 구한 캐나다 여성의 사연이 논문의 사례로 등장했다.

지난 21일 CNN에 따르면 2018년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30대 여성은 길을 걷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았다.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은 이 여성은 가슴과 늑골 부위에서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이내 피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여성은 자신의 발로 병원을 찾았다.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일반적인 총상보다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을 진료한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료진은 여성의 가슴 보형물이 총상을 입고도 목숨을 부지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료진에 따르면 총알이 여성의 가슴 보형물과 충돌했고, 보형물 탓에 방향이 바뀐 뒤 갈비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총알이 원래의 방향대로 날아갔다면 이 여성은 목숨에 위협을 받을 만큼 위중한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의료진은 "가슴 보형물에 남아있는 흔적과 총상의 흔적 등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총알이 가슴 보형물에 맞아 궤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사례는 매우 극소수이지만,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는 총알이 가슴 보형물과 충돌하면서 속도가 느려졌을 뿐, 궤도가 바뀐 사례는 없었다." 면서 "총알은 왼쪽 가슴을 뚫고 오른쪽 갈비뼈를 부러뜨린 뒤 몸을 관통했다. 만약 원래의 방향대로라면 심장과 폐에 직격타를 안겨 환자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졌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의 사례는 지난 15일 영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세이지 저널(SAGE Journal)에 실렸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가나 세무 & 보험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가나 세무보험**  
GANA TAX & INSURANCE

**실업수당 신청 • 긴급재난응자 신청 • PPP(금료보호 프로그램) 신청**

**가나 세무 & 보험은 고객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세금과 보험을 함께 도와드리는 가나 세무 & 보험  
보험고객은 세금수수료 50% 할인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고객의 세금보고는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업소득 제외)

세금보고 / 법인설립 / Sales Tax  
세무감사대행 / 회계업무 / Payroll Service  
오바마 케어 보험 / 메디케어 보험 / 기타 보험

\*세금보고마감 3개월 연장 : 7월 15일까지\*

**김선광 (Kayson Kim)**  
40년 실무경험의 공인세무사  
beachgana@gmail.com

**O : 714.827.0707**  
**C : 714.588.3355**

3008A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